

마르코 복음서 2장

중풍 병자를 고치시다(마태 9,1-8; 루카 5,17-26)

- 1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 2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 1) ‘말씀을 전하다’는 그리스도교 설교를 가리키기도 한다.¹⁾ 마르코는 여기에서 교회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설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²⁾
- 2)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교회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첫째가는 사명이다.

- 3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 4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 병자가 누워 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 1) 당시 가옥은 일반적으로 단층이며, 옆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지붕이나 옥상은 나무로 된 들보를 얹고 나뭇가지나 갈대 같은 것을 놓은 다음 진흙으로 덮었다. 그러기에 쉽게 벗길 수 있었다.
- 2) 중풍 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나선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도 아닌, 병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왔다.

- 5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 6 율법 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 7 ‘이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³⁾

1) 사도 4,29 : 이제,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8,25 :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2) 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63쪽, 각주 3 참조.

3) 시편 103,3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낮게 하시는 분.
이사 43,25 : 나,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너의 악행들을 씻어 주는 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

- 8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 9 중풍 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 10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 11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 12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마태오 복음서 9,1-8 해설 참조.

레위를 부르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마태 9,9-13; 루카 5,27-32)

- 13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 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 14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⁴⁾ 알패오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 15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 16 바리사이파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 17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1) 자신이 건강하다고 즉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들에게는 의사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병든 이들 곧 죄인들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

2) 마태오 복음서 9,9-13 해설 참조.

지 않으리라.

4) 고을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이 징수되었다. 카파르나움은 해로데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영토의 국경 도시였다. 로마인들이 체계적으로 조직한 일반 세금과 관세 징수의 권리는 민간 업자들에게 임대되었는데, 이들이 하급 직원을 고용하여 일반 세금과 관세를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통행세도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주석 성경, 마르코 복음서, 64쪽, 각주 13 참조).

단식 논쟁- - 새것과 헌것(마태 9,14-17; 루카 5,33-39)

-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인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 1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 20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 21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깎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 옷에 기워 댄 새 형겅에 그 옷이 땅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 22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태오 복음서 9,14-17 해설 참조.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다(마태 12,1-8; 루카 6,1-5)

- 23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 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 24 바리사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⁵⁾
- 25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 26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 27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⁶⁾
- 28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오 복음서 12,1-8 해설 참조.

5) 신명 23,26 : 너희가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 손으로 이삭을 자를 수는 있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서는 안 된다

6) 탈출 20,8-10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신명 5,12-14 :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여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너의 소와 나귀, 그리고 너의 모든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너의 남종과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해야 한다.